

지역 소식통

부안군 올 상반기 퇴임식

부안군은 29일 군청 대강당에서 퇴직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퇴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퇴임식은 퇴직자(임원택·김현철·이경신·신경철·임재섭·성봉열·조완선·이종창씨)와 가족 직원 등이 함께했으며 퇴임자 소개, 공로패 수여, 송별사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퇴직자들은 이날 퇴임인사를 통해 "보람 있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영예로운 퇴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과 후배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함께 나는 정은 부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고 고마움과 아쉬움을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그간 공직자로서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마음에 담고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서 응원하겠다"며 "부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해서 응원해 주길 바란다"는 송별인사로 퇴직자들을 응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주산지 일관 기계화

장기임대 사업 본격 추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장기임대)을 추진한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일손 부족 해결과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 밭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밭작물인 콩과 양파, 고추 등 주산지 집단 생산단지 중심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임대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8~19년도 사업을 추진해 지역농협과 연구회 작목반 등 6개소(사업비 12억)에 27종 36대의 파종 및 수확 농기계를 장기임대했다. 올해는 2개소(사업비 4억)에 6종 8대의 농기계의 장기임대를 추진해 임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첨단산업단지 기업 잇단 등지

에코비즈넷·한터·안정개발 3개사 투자 확정

50억 규모, 50명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기대

정읍시는 29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새롭게 입주할 희망하는 기업 3개사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주)에코비즈넷 조정섭 대표, (유)한터 안병한 대표, (주)안정개발 박진근 대표가 참석했다. (주)에코비즈넷은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기업으로 총 4,948㎡ 부지에 1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첨단연구단지 내 농축산업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기술 개발로 각종 미생물 제제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유)한터는 건강식품인 블랙커피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으로 4,418㎡ 부지에 20억원을 투자해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동지를 둔다. 또한 (주)안정개발은 최신 철재시스템 마루를 등 건축 신자재를 제조하는 신설기업으로 4,537㎡ 부지에 2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속 할 계획이다. 이번에 투자를 약속한 3개 기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투자하고, 약 50명을 신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한 (유)한터 대표는 "환영해 주신만큼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지역경

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읍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 대표들께 감사하다"며 "기업 투자 환경 조성 과 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답했다.

한편 신장동 일원에 89만6,321㎡ 규모로 조성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전북연구개발특구지역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세제 혜택과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익계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다. 현재는 14개 기업이 가동 및 운영 중이고 4개 기업이 건축 중이며 2개 기업이 설계를 끝내고 7월 착공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북 최초로 '친절 택시 인증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정읍시, 도내 첫 친절택시 인증제 도입

친절도·안전운행 등 평가, 친절기사에 인센티브 제공

정읍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북 최초로 '친절 택시 인증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친절 택시 인증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은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택시기사의 친절도와 안전운행 등 평가·검증을 거쳐 친절 기사를 선발하는 제도다.

시는 일부 택시기사의 불친절로 인해 다시 찾고 싶은 정읍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관련해 시는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지난 28일 친절 인증제 및 친절 교육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기사의 친절도·준법 운행, 시민참여 설문조사, 사례 제보를 통해 친절 택시를 선정한 방침이다.

친절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인증 스티커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친절 택시 운영 기간 중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서비스 혁신, 고객과 대화 기법, 불만 사항 응대법 등을 교육해 친절서비스 의식을 갖추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친절 택시 인증제와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절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보다 친절한 택시 운수종사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창판 뉴딜' 국비확보 '팔 걸었다'

유기상 고창군수, 국회 찾아

현안사업 반영 필요성 설득

고창군이 코로나 이후 고창 제도약을 위한 '고창판 뉴딜' 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1년 국가예산 부처 안이 확정돼 기획재정부 집중심의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고창판 뉴딜' 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 군수는 국회 상임위가 정해진 뒤 전북도 국회의원과 등과 면담하며 지역 주요현안사업을 비롯해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중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 정읍·고창지역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창군 전체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핵심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전주갑), 김성주 의원(전주병), 이원택 의원(김제·



고창군이 코로나 이후 고창 제도약을 위한 '고창판 뉴딜' 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부안), 김수홍 의원(익산갑)과 고창출신 안구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등을 연이어 면담하고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길 요청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원전피해에 따른 교정 성격으로 남세지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지역지원시설) 개정과 함께 최근 이상현 의원(울산 북구)이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오랜 숙원사업인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비롯한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 등을 논의했다.

또 핵심국가예산으로 식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공유팜플롭 구축사업(30억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166억원), 제3차 연안정비사업(378억원) 등 핵심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부안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조 직문화 확산을 위해 부안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2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부안

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근거로 행정, 법률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공무원이 업무추진 시 법령해석 어려움 등으로 직접 의견 제 시를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부안군 적극 행정 실행계획 수립(안), 2020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상큼하고 신선한 햇오디 홈쇼핑시장 공략

오늘 오후 4시 30분 NS홈쇼핑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욱)는 제철 맞은 정읍 오디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30일 오후 4시 30분에 판매방송(NS홈쇼핑)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송에서 판매되는 정읍 오디는 단맛이 일품인 청일오디로 깨끗한 심진강의 물을 간직한 육질로 주변에서 철저한 재배관리로 생산된 것으로 선별작업을 통해 엄선된 제품만 판매된다. 뽕나무의 열매로 알려진 오디는 건강에 좋은 블랙푸드의 대표적인 과일이며 정읍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디 주산지이다.

특히 청일오디가 생산되는 정읍 산내면 일대는 해발 400미터의 고지대로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신선하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뽕나무는 예로부터 뿌리는 약재로 쓰고 뿌옇은 누에를 치 비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열매인 오디는 과일로 이용되어 신목(神木)이라 불리기도 한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오디는 당뇨병에 좋고 오장에 이로우며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귀와 눈을 밝게 하고 백발이 검게 변하고 노화를 방지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가치를 인정 받은 과일이다.

오디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안토시아닌과 염증 개선과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는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높아 노화 방지와 피부미용에도 좋다. 또한, 단백질과 섬유소 등 영양성분과 칼슘, 비타민 B1, 비타민 C의 함량이 일반 과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강에도 유익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오디와 복분자 등 정읍 명품 베리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판매개척 및 홍보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